

# Real Power I.

## 하늘의 능력은 현장의 싸움에서 실재가 된다.

### 1. 성도의 정체성

[에베소서 6:12-13]

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 (1) 싸움이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한다. 성도의 현장은 '싸움터'이다. 싸움은 왜 하는가? 전쟁은 왜 하는가? 명확한 답이 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싸움은 연습경기가 아니다. 진다면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다. 패배로 인해 오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 묵이고 포로되는 것이 결과이다. 치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이겨도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다.

#### (2) 악한 영들

이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12절에 보면 '악한 영들'이 그 싸움의 대상이라 말한다. 그 악한 영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말한다. 즉, 우리가 싸울 대상이 쉬운 상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권세가 있고 통치하는 자들, 지배하는 자들이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다.

성도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음이 안타깝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파이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3) 적대자들을 대항

1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말한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한다'라는 말솜에 주목하라. 성도의 신앙에는 '대항' 즉, 싸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성도라면 그 삶에 반드시 있는 싸움이다.

### 2. 어떻게 싸울 것인가?

#### (1) 죄의 본성

성도의 정체성이 '파이터'라는 사실을 알았다. 성도는 '용사'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실력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다.

[히브리서 12:4]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4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솜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죄'로 언급하고 있다.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보여준다. 죄는 맞서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솜을 이해해야 죄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죄는 이기지 않으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 통치한다. 묵고 포로되게 한다. 즉, '죄'를 통로로 들어와 이기며 왕 노릇 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존재 '마귀'가 있다는 것이다. '죄'는 문과 같다. 그 문이 열려서 지배자들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기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창세기 4:7]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죄를 지은 것이다. 죄를 지은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범죄 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엄청난 말솜이다.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고 말솜한다. 죄가 '의인화' 되었다. 그리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죄가 의인화 될 수 있는가? 이 말솜은 죄를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문’은 ‘페타흐’라고 한다. 뜻은 ‘열린 구멍, 통로’이다. 문은 출입구이다. 그래서 문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죄를 범했지만 만약 문을 닫고, 죄를 차단하고, 대항하고, 더 나아가 다스리며 대항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 (2)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

히브리서 12:4절의 말씀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하신다. 왜 그런가? 문을 열고 들어온 마귀의 파괴력은 강하다.

[요한복음 10: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 삶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한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싸움에서 질 때 너무나 큰 대가지불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 (3) 사탄은 죄의 뱀새를 안다.

사탄은 죄 뱀새를 정확히 안다. 내 안의 욕의 생각들을 정확히 안다. 하이에나가 죽은 고기의 뱀새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죄 뱀새를 정확히 안다. 죄 뱀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악한 생각만 해도 사탄은 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한다. 최고의 사냥꾼이다.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도 사탄 또한 실수하지 않는다.

## 3. 용사로 일어나라. (진짜 능력, 진짜 실력을 갖추라)

성도는 이제 진짜 싸울 능력을 갖춘 용사로 일어나야 한다. 싸울 줄 알아야 한다.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 ‘진짜’는 감출 수 없다. 분명하다. 실재적이다. 능력이 없는 진리, 모양만 있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

### (1)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 23:8-12]

8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팔백 명을 쳐죽였더라

9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돌우고

10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승리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라 말한다. 그들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진짜 싸울 줄 아는 실력있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용사’로 서야 한다. 진짜 실력이 있어야 한다.

### (2) 용사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진짜는 언제나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 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실전의 경험이 실력이 된다. 이제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 그 경험이 ‘진짜 실력’이다. 그러므로 현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현장에서 하늘의 능력이 실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험은 속일 수 없다. 경험은 설명이 필요없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언제나 현장이었고, 경험하게 했다.

### (3) 십자가, 보혈의 진짜 능력을 경험

십자가, 보혈의 진짜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하라. 그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진짜 용사들이 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실전에서 실력을 키우라.

### (4) 내가 싸워야 할 목록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라.

기록하라는 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다른 표현의 말이다. 기록해서 대항하라. 알아야 이긴다.